

한올타리

2021 Autumn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1 No.3

2021.12.12

편집: 홍보위원회

나사로와 아브라함

이영길 목사

복음서 기자 중에 누가만 유일하게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끝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를 가득채우는 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여러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대강절을 맞이하여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를 포함해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여기며 부러워 했을줄 압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 역사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졌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거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주인공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지이지만 주인공으로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했던 수고를 기억하고 그를 따뜻한 품에 안은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여러차례 저희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 내지 물건을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강절 기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는 계속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12일 당회에서 결정한

COVID-19 델타 변이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모임 가이드라인

COVID-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인식하고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면서 안전한 교회 내 현장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당회에서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1. 모든 모임은 브루클라인 타운이 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실내환기, 거리두기, 세척/소독과 같은 기본적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2. 가능한한 교회 모임의 다과나 식사는 실외에서 나누도록 하되, 위원회 별로 위원장의 관리하에 기상조건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다과나 식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내에서 음식을 나눌 경우, 개인용 용기를 이용해서 흠어져 확실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3.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실내모임에서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며 주방에서 음식준비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 홈리스 쉼터봉사).

또한 지난 11월 PC(USA) presbyterian Women Inc.,(총회 여성교회)로 부터 본교회 김한나 장로님이 지난 3년 동안 한미여성 대표로 실행위원 (NCKPC 평신도 부총회장 역임 포함)으로 충직한 봉사함에 따른 표창장(공로장) 포상 기쁨을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8월부터 주일예배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1, 2부로 드러지며 장기화된 코비드-19 상황에도 현장 참여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찬양대, 찬양팀, 방송팀, 통역팀, 안내위원등, 예배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5-11세 어린이들의 백신과 부스터 백신접종, 그리고 개발중인 치료제가 잘 진행되어 속히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1. 3세대가 함께하는 실시간 온라인예배가 주일 1, 2부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1부 - 오전 8시45분, 2부 - 오후 12시). 2부 예배 시작전 찬양팀의 인도로 다함께 드리는 '찬양' 순서를 2부 예배 '예배에의 부름'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예배순서 일부를 당회의 인준으로 변경했습니다. 8월부터 복귀한 하이브리드 방식 주일 1, 2부 예배의 현장 참가인원이 60 - 90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8월15일 주일은 광복절 기념 예배 (광복 76년), 10월3일 성찬과 함께 세계 성찬주일/ 정의평화환경 주일, 10월 31일 청년부 헌신예배, 11월 7일 청지기 헌신예배, 11월 14일 부부청년부 헌신예배,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 창립 68주년 기념예배, 그리고 11월 28일에 대강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3. 찬양대: 주일 1, 2부 예배 복귀에 따라 1, 2부 찬양대도 기존의 방식으로 복귀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8월15일 주일부터 민채영 교우 (BU 피아노 박사과정)가 2부 찬양대의 임시 반주자로 섬기고, 9월26일 주일부터 김우영 교우 (NEC 석사과정 메조 소프라노)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4. 찬양팀: 8월부터 찬양팀이 2부 예배의 찬양시간 인도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나해서/김지희 가정과 박민제/김은지 가정을 위한 찬양팀 베이비 샤워가 있었습니다.
5. 찬양대와 헌금송을 위한 본당hanging mic 설치를 했습니다 (총 \$5838.71 소요). 함께 수고하신 지휘자 박진욱 집사, 최학수 집사, 그리고 Simon Yue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헌물해주신 2021년 임직 신임안수 집사/ 권사들께 감사드립니다.

- 6. 방송실: 8월부터 1, 2부 예배의 진행을 위해 1부 - 구용한 집사, 김영돈 집사, 김영순 권사; 2부 - 이석원 집사, 채진병 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라이드 제작팀 (하은혜 집사)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 7. 동시통역팀: 8월 2부 예배부터 동시통역팀 (김학주, 조나현, 박현석, 김현모)의 섬김으로 통역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동시통역 장비 업그레이드 (헤드폰 9개 구입; RF transmitter antenna 교체).
- 8. 주일 사역자들을 위한 김밥 도시락 준비: 9월 중순부터 주일1, 2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찬양대 지휘자/반주자/솔로리스트들, 그리고 1부 방송실팀을 위해 김밥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6명). 이를 후원하시는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동참해 주시는 마리아 여성교회, 권사회, 북동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쉐마행사 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7일 에는 “당신이 빛나는 밤에” 에피소드 II.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밤” 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각자가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고 연주 혹은 함께 부르는 시간과 통해 3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앞서, 팬데믹 동안에 새롭게 우리교회에 출석하신 홍정표-박미영-홍예소 가정이 2021년 마지막 쉐마의 밤의 촛불을 밝혀 주었고, 쉐마 찬양팀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내었습니다. 새롭게 찬양팀으로 합류하신 이혜민, 심세희, 유진선 집사님들이 함께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라는 고백이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마림바와 피아노가 협주하는 “Amazing Grace with Bach”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선율은 현장에서 혹은 화면으로 시청하시는 교우님들이 모두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송하영 교우님-유진선 집사님, 지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은혜의 따뜻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모두가 기다리던 “당신이 빛나는 밤에” 에피소드 II.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밤”은 안성완/진정원 장로님 부부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이끌어 주셨는데요. 각 연령별로 선택한 최고의 인기 찬양을 나누면서 세대를 넘어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랑스러운 유초등부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는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God will make a way는 팬데믹 동안 길을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찬양과 함께 공개된 4050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침 원곡자이신 조은아 교수님께서 20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배경을 설명하여 주셨고, 이를 받아 남서구역 식구들이 멋진 목소리로 직접 불러주셔서 더욱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을 추스리기도 전에 2030에서 가장 사랑하는He knows my name (나를 지으신 주님)이 흘러나왔고, Tommy Walker 목사님께서 곡을 만드신 배경을 보고나니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감동이 다시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우리교회의 미래인 중고등부에서는 Sinking Deep을 직접 부르면서 팬데믹 동안 해온 사역들을 영상으로 편집해 주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깊은 신앙을 위트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어른신들이신 상록회원들이 한 분씩 등장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한 소절씩 불러 주셨는데, 우리들 부모님의 얼굴들과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게 만들었습니다. 어른신들.. 모두 건강하게 팬데믹 이겨내고 다시 행복하게 신앙생활 같이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한정인 집사님께서 신청해주신 You are my all in all이 나오면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이겨낼 강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같이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새교우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교우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신 교우님들을 신준섭/박예리 집사님 가정이 재치있고 정결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도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사랑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 교회를 함께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고흐의 그림과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평범한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 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순의 마지막으로 남선교회에서 모금하신 장학금을 교육2부에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어른들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과 축복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쉼마의 밤을 위해 감사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영상 제작을 위해 밤을 세우며 준비하신 강현기 선생님, 또 하나의 멋진 쉼마의 밤을 기획하고 디렉팅하신 이혜승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 주신 쉼마팀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장로
위원: 김정연, 정광근, 최수경

구제헌금- Homeless어린이이 속옷, Hurricane Ida, Afghanistan Refugee

정평환에서는 10/31/2021부터 약 3주간 3가지의 주제를 놓고 기도와 모금을 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이 속옷 지원 모금으로 Cocotree Kids라는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이 속옷을 구입 지원하는 단체를 돕는 사역으로 3주간에 약 \$3,250을 모금하여 약 5,000여벌의 속옷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Hurricane Ida를 돕는 모금으로 PCUSA mission 재난 지원의 구제 사역에 함께 지원하는 모금으로 \$950을 모금 송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Afghanistan Refugees를 돕는 모금으로 마찬가지로PCUSA mission 재난 지원의 구제사역의 하나로 \$1,000을 모금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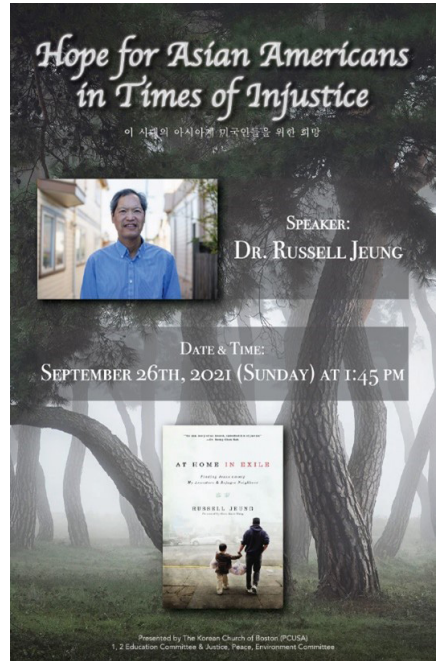


계속되는 팬데믹의 어려운 사정과 모두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재난에 빠진 이웃과 어린이들을 향한 모두의 기도와 사랑이 이런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Dr. Russell Jeung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초청 세미나

교육 1, 2부/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주최-세미나로 “Hope for Asian Americans In Times of Injustice” (이 시대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9월 26일(주일) 오후 1:45분에 교회 본당에서 열었습니다. 교육 1, 2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진행으로 대면과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강사분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강의와 삶의 경험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질문과 응답, 또 함께 생각해야 하는 주제와 과제들을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전화로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종 문제와 사회 문제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오랜시간 동안 이 문제들을 놓고 활동해 오시고, 또 삶으로 체험하시는 Russell Jeung 교수님의 강의를 접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가슴을 울리는 강의(간증)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주간에 모은 donation의 총액과 내용입니다.

Donation Summary

	Underwear for Homeless Kids	Hurricane Ida	Afghanistan Refugees	Total
10/31/2021	1,550	450	450	2,450
11/7/2021	1,250	100	150	1,500
11/14/2021	450	400	400	1,250
TOTAL	3,250	950	1,000	5,200

뉴멕시코 선교지 후원 물품 판매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뉴멕시코 선교지에서 만든 라벤다 상품(비누, 오일 등)을 12월 5일 판매했는데 당일 모두 물품이 매진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단기선교를 가는 뉴멕시코 선교지는, 나바호 부족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나바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인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Christian Vision Academy)와 라벤더 농장인 조이풀 가든(Joyful Garden)을 록키산맥 초입에 위치한 선교센터를 통해 이덕재 선교사님과 그곳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센터 스태프들이 직접 키운 라벤더로 만드는 유기농 비누, 바디 미스트, 블리스(롤러 볼 향수), 라벤더 주머니 등의 판매를 하고 계신데, 교회를 통해 판매시,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판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이풀 가든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라벤더 제품의 수익은 모두 선교지에서 나바호 부족과 선교센터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선교센터에서는 나바호 부족의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현지 교회 4곳(나바호 언어로 예배)을 선교사역으로 지원하고 매년 여름 미 전역의 10여 교회와 함께 나바호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합니다



The graphic features a white background with a purple border and lavender illustrations. At the top, it says "Lavender Gift Set" in purple. Below are three gift set options, each with a small image, a list of items, and a green circle with a number:

- 1 Soap Set**
Lavender Soap
Lavender Pouch
- 2 Lavender Oil Set**
Lavender Essential Oil
Lavender Bliss or Mist
Lavender Pouch
- 3 Deluxe Set**
Lavender Soap
Lavender Pouch
Lavender Essential Oil
Lavender Bliss or Mist
Joyful Garden Logo Canvas
Lavender Pouch

오아시스 뮤직 - “All Forms of Light”, Streaming Music Event

이번 오아시스 콘서트의 타이틀은 미국의 첫번째 청년 계관시인인 어맨다 고먼 (Amanda Gorman)이 어느 인터뷰 중 언급한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모든 형태의 빛은 항상 어떤 형태의 그림자와 같이 온다.” 그녀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 (The Hill We Climb) 을 살펴보면 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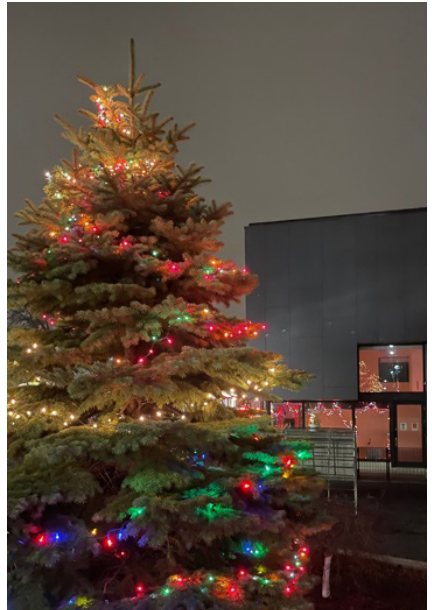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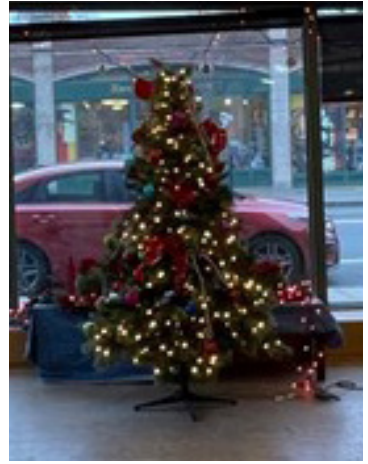
동이 틀 무렵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늘 속, 그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

동이 틀 무렵에, 우리는 빛을 발하며 두려움없이 그늘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풀어준 새벽은 이제 새로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빛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담대히 그 빛이 된다면.
 (콘서트 기획팀 번역)

우리도 때때로 끝나지 않을 어두움에 살고 있는 것일까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팬데믹 시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빛은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위에 인용된 시에서, 고먼 시인은 우리에게 그러한 “빛”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응답하여 오아시스 뮤직에서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과 그 연주를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선사하고자 여러분 모두를 오아시스 뮤직 콘서트, “All Forms of Light”에 초대합니다. 12.18 (토) 오후 7시, youtube 또는 ecckcb.org 에 오셔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2022년도 KCB달력 주문: 벽걸이용 200부, 탁상용 100부를 주문하였습니다.
2. 성탄절 장식을 교회 내, 외에 하였습니다. 청년 1, 2 회원들의 봉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 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가을에도 두 가지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0 월 2일에 있었던 교회 대청소에서는 20여분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청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성히 자란 나무들을 잘 정리하고 잡초를 뽑는 일에 모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0 월 31일에는 김 동숙 권사님과 함께 homeless shelter 봉사과 청년부 점심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침 같은 날 설교를 해주시기 위해 방문하신 조은아 교수님께도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 깊었습니다.

12월 11에는 제직회와 집사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로 선출될 집사회 임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 않고 일하는 저희 집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나긴 팬데믹의 여정속에서도 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하반기 동안에 해온 일들은 지속적으로 상록회원분들께 생신카드와 Care card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안부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권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만찬준비를 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임직되신 4분 김동숙, 김영순, 이성숙, 주미옥 권사님들께 축하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해외선교를 위한 후원금 \$2,000을 해외선교위원회에 드렸으며, 그리고 오랫동안교회 여러부서와 특히 성만찬 준비를 위해 섬기시던 고 박춘지 권사님께서 지난 10월 중 지병으로 소천하셨으며 김성빈 장로님과 가족분들께 장례식에 헌화를 보내 위로를 전했습니다.

10월17일에는 1,2부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예배위원들을 위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2월5일에는 수고하시는 교역자분들께 연말 선물을 마련하여 드렸으며, 2월 10일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에 봉사하실 새임원진을 선출할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위해 강단장식을 하였습니다.



남선교회에서는 팬데믹 기간이지만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하여 골프대회를 가지고, 모아진 선교 기금으로 4명의 장학생(교육 2부(청년 1,2부)-3명, Brookline High school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신 남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식 - 쉼마의 밤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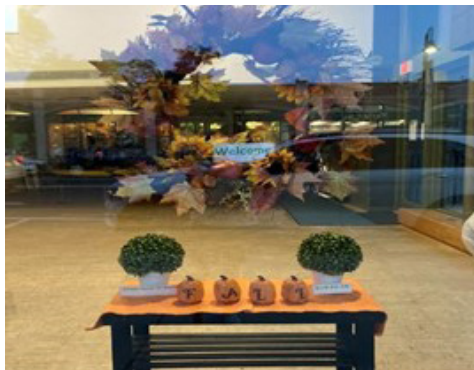
대면 예배의 시작과 더불어 잠깐의 시간이지만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여 선교회는 예년과 같이 모든 교회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희에게 허락된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하반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1. 마리아 여성 중보 기도모임을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내 이웃, 교회와 사회,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 하는 모임입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기도가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모임은 zoom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교회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2. 10월 16일, 제 30회 연합선교대회 및 18회 정기총회(동북대회 여성연합회)가 Zoom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저희 교회의 김영순 권사님이 동북대회 여성연합회의 제 18회기 부회장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3. 10월 10일, 11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한 점심 준비, 접대가 있었습니다.
4.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1부 예배 후 떡을 나누는 작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5. 11월 21일 하반기 쉼터 음식 봉사가 있었습니다. Thanksgiving Day를 맞아 터키와 여러 음식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준비였습니다. 마리아의 많은 분들이 기도, 도네이션, 시간과 열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6. 올 해부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교역자 사모님들 생신에 작은 선물과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모님 생신 당일에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7.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절기를 알리고, 함께 나누고자 교회 절기마다 교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8. 12월 5일 마리아 정기 총회를 하였습니다.
회장 : 진정원 집사님, 부회장 : 김연희 집사님 그외 다른 분들도 작년에 이어 회계로 총무로 자원하여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마리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 되는 마리아가 되기를, 더하여 앞에서 수고해 주실 새로운 임원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 교회 장식



헬터 음식 준비 및 포장



추수 감사 주일 - 교우님들께 떡 나눔

교육2 위원회

보스톤 지역 Haiti 난민들을 위한 용품 모집 - 12월 5일(주일) /12일(주일)

최근 보스톤 지역에 온 Haiti 난민들을 돕기 위한 겨울철 필요한 물품들을 교육 2부 부서들(청년 1부, 청년 2부, 부부청년부)이 모집합니다.

최근 보스톤에 도착한 Haiti 난민들을 위해 집에서 쓰지 않거나 오래된 물건들을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지진, 정치적 불안, 식량 부족 등 총체적인 위기로 올해 하반기 Haiti 난민들이 급증한 가운데, 그들의 법적 지위와 주거, 생계가 해결되지 못한 채 겨울이 찾아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착한 난민들 중 임산부와 영유아가 많아, 유아용품, 침구류, 겨울 옷, 신발, 위생용품 등의 물품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집한 물품들은 수거 장소(Immigrant Family Institute)로 전달하였습니다.



The Boston Globe

With ~300 Haitian migrants here, 33 pregnant women and 35 children younger than 6 are among those who have been arriving daily...

there is no end in sight, Gabeau said. "We should expect a steady flow."

DR. GERAULDE GABEAU
General Director of Immigrant Family Institute
Centers in the World Wide: 147,152,153

Instagram: @ifiusa
www.ifiusa.org/donate

**보스톤 지역에 온
Haiti 인들을 돕기 위한 물품 모집**

- 겨울 의류 용품/유아용품 등 -

12. 5.(주일)

For More Information

[Click Here](#)
KCB 교육 2부 위원회

RESOURCES NEEDED

Age Ranges	0-5 years old
	6-12 years old
	13-17 years old
	18-24 years old
	25-34 years old
	35-44 years old
	45-54 years old
	55-64 years old
	65+ years old
Age of Children	0-5 years old
	6-12 years old
	13-17 years old
For Men/Boys/Adults	0-5 years old
	6-12 years old
	13-17 years old
	18-24 years old
	25-34 years old
	35-44 years old
	45-54 years old
	55-64 years old
	65+ years old
For Women/Teens	0-5 years old
	6-12 years old
	13-17 years old
	18-24 years old
	25-34 years old
	35-44 years old
	45-54 years old
	55-64 years old
	65+ years old
For Families	0-5 years old
	6-12 years old
	13-17 years old
	18-24 years old
	25-34 years old
	35-44 years old
	45-54 years old
	55-64 years old
	65+ years old
Comments/Notes	

Deliver to Immigrant Family Services Building
Monday - Saturday 9-4pm
1628 Blue Hill Ave, Mattapan, MA 02126

@ifiusa
www.ifiusa.org/donate
#BostonWeCome



1. 주일모임 및 금요일집회(in-person): 주일 모임은 9월, 금요일집회는 10월부터 모두 대면모임(in-person)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는 [디모데전후서]를 나누고 있고, 금요일 모임은 10월 중순부터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말씀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2. 청년1,2부 연합 세미나: 청년1,2부와 정의평화환경위원회가 함께 주최하여, 9월 26일(주일)에 Dr. Russell Jeung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Hope for Asian Americans in times of injustice라는 주제로, 미국 2세, 이민 청년, 유학생 청년들에게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청년1,2부 헌신예배 및 연합모임 (pumpkin carving): 10월 31일에 조은아 교수님을 강사로 청년1,2부 헌신예배를 가졌고, 이어진 모임시간에 연합으로 pumpkin carving 친교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청지기와 그루터기의 사명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와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4. 가을수련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6:11~12)를 주제로, 11월 12~14일((11 Bayberry Hill Rd, Narragansett, RI 02882)에 가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Pandemic 기간동안 나누기 힘들었던 청년들의 연합함,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5. 추수감사절 모임 및 연말/학기말 모임: 추수감사절, 성탄절, 가을학기 종강, 연말기간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새해를 향한 소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2부에서는 주일날 9월부터는 Rm 16에서 모여 점심식사 후 2개의 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주일모임은 대면으로 만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대면/줌으로 Hybrid 형태로 모여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정기 총회 를 통해, 새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회장: 김현모 부회장: 김현범 총무: 임주광).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부 공동체를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출마 의사를 내고, 열띤 선거 분위기에서 새 회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청년부 헌신예배를 10/31일에 청년 1, 2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예배 순서에 참여하여 아름답게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 설교자: 조은아 교수, 청년부 헌금 송: '청년들의 기도' (찬양인도: 최효영))



10월 31일: 청년부 헌신예배 후에 청년 1부의 제안에 따라, Pumpkin Carving 대회를 가졌습니다(우승팀 -1: 최효영/안수민, 우승팀-2: 백 현, 양유경, 김우영). 우승자 판정을 위해 한문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11월 25일(Thanksgiving Day) 김현모 새회장 집에서 모여 한해의 감사 제목을 나누며, 풍성한 추수감사절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요 활동 모임으로는,

1). 새교우 환영회 및 Welcome Back 환영 모임 (Larz Anderson Park):

9월 19일 Pandemic 기간에 새로운 교우들과 보스톤을 떠났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지체들을 환영하는 모임으로 야외에서 바비큐 식사(준비: 양원제, 이준석)을 나누고, 게임 등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2부 위원장이신 한문수 장로님께서 점심 식사를 위한 Donation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세미나, “Hope for Asian Americans in Times of Injustice”

정평환/교육 1,2부와 함께 주최; 9월 26일:

Dr. Russell Jeung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초청 세미나를 교육 1부, 2부, 정평환과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세미나 주제를 함께 정하고, moderator로 정윤원 형제가 수고하였으며, 청년들의 active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 전에, 청년부에서는 9월 12일에 Dr. Jeung의 책, [At Home In Exile]로 청년 1부, 2부 함께 Book Talk 가져, 보다 청년들이 이 책에 engaged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resenters: 임주광, 이준석, 정윤원, 안성민, 안수민)

교육 1,2부 &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주최 세미나

9. 26. (Sunday) 1:45 p.m

“Hope For Asian Americans in Times of Injustice”

(이 시대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희망)

강사: Dr. Russell Jeung

주최: DR RUSSELL JEUNG

부부청년부

회장: 최정규, 심진희 집사

모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Thanksgiving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청년부는 가을부터 2주에 한 번 Hybrid 형식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형식으로, 다른 한 주는 교제 위주의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름 동안 새로운 부부청년부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부부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랜 만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특송 연습도 하며 헌신 예배를 준비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헌신 예배 후에는 총회를 통해 2022년도 새 해 부부청년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에는 <이주원 & 이은미> 가정이, 부회장에는 <김학주 & 강다애> 가정이, 그리고 총무로는 <임극유 & 이수정> 가정이 선출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의 새로운 회장단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며, 부부청년부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함께 대면으로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Zoom 에서 만나는 형식으로 성탄 축하 연말 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소망합니다.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 모인 부부청년부



야외 대면 모임



새가족 환영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중고등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작고 큰 모임들을 가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9월 말에는 Russell Jeung 박사님께서 강연을 하러 저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Stop AAPI Hate의 설립자로서, Jeung 박사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는지, 또 자신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마음껏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뜻깊었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11월 말에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저희 중고등부와 나사렛사람교회의 중고등부가 함께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의 두번째 찬양의 밤 자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비록 아직 주의와 방역지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욱 더 자유롭게 사랑이 가득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1월 말에는 쉼의 밤도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Hillsong의 Sinking Deep 찬양을 드리며, 올해의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발표영상에는 재밌고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의 사진에 담겨있었고, 학생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까지 더해져 더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는 Boston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Program을 통해 기부활동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카드를 쓰고 선물을 싸며,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올해의 감사함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즐겁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항상 중고등부 학생들이 몸도 마음도 편하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유초등부

담당 김수영 목사

이번 가을은 해바라기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작년 3월부터 팬데믹 동안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1년 반 만에 9월 진급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한 것이 큰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봐야 할만큼 훌쩍 성장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자라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삼세대 예배를 통해 보스톤 한인교회 온 교우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해를 향해 쪽 뺨은 해바라기처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교회 복도를 뛰어 다니는 어린이들이 보이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창문을 열어 환기도 잘 되는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30 여명의 어린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섬겨 주시는 온라인 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전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주시는 강현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 가을을 보내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팬데믹 동안 삼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껏 섬겨주신 방송실과 찬양팀 및 예배 위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상록기도회 어르신들께 출판데믹 감사 카드를 쓰고, 마스크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어 전해드렸습니다. 최안나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의 설명에 따라, 낚시 줄에 작고 예쁜 구슬들을 꿰어 넣으며 아이들의 눈과 입은 한껏 집중하면서도,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 교회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마음은 마냥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수록 교회와 어른 세대들을 향한 어린이들의 감사가 더 커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어른들의 마스크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스트랩을 발견하면 킥킥 웃으며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제일 기다리는 간식 시간도 없으며, 어린이 예배당에도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내년 초봄 쯤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ECC어린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도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교인위원회 신준섭 집사

2020년에 이어 2021년 한해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많은 변화를 겪었던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에는 새로 오셔서 정착하시게 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부터 부부청년부, 또 여러 구역에 속하시는 장년부에게까지 많은 가정들이 새로 오셨지만 특별히 부부청년부에 새로오신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사진과 소개글을 보내주신 가정들을 소개합니다.

강문일/안은주 가정

팬데믹으로 인해 100%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던 작년 10월에 강문일 교우님의 포스닥 연구원 과정때문에 보스톤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 안에서의 모든 교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스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보스톤에서의 생활을 후회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이수정 가정

김정환 교우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위해 올해 여름 타주에서 보스톤으로이주하여 저희 보스톤한인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김이안 군과 딸 김조이 양을 두고 계십니다. 보스톤 한인교회라는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홍정표/박미정 가정

슬하에는 딸 홍예소를 두고 계시고 지난 8월 보스톤에 오셨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신재/오새롬 가정

슬하에는 딸 이시온, 아들 이태오 를 두고 계시고 이신재 교우님께서서 학업을 위해 보스톤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 속에도 보스톤한인교회의 많은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아이들도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복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석빈/정혜윤 가정

슬하에는 딸 김봄양을 두고 계시고 올해 1월에 한국에서의 맞벌이 생활을 접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좇아 미국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김석빈 교우님은 현재 MCPHS에서 공부중이시고 정혜연 교우님은 이곳 보스톤 생활에서 적응하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보스톤 한인교회의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가정의 진로와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승/장유림 가정

두 분께서는 딸 김해나 양과 아들, 김해든, 김해담, 김해온 군,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지난 7월 김윤승 교우님의 학업을 위해 보스톤으로 오셨고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좋은 신앙공동체를 만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김정현 가정

슬하에는 딸 정소현 양과 아들 정승현 군을 두고 계시고 정재우 교우님께서서 1년간 로스쿨 과정을 밟게 되어 브루클라인 지역에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피어스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LOVE JESUS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누가복음 2장 14절

© GODpeople.com